

Press Release 1

2014 년 6 월 9 일

국제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사는 그곳, 로고스 호프. 인천 입항!

로고스 호프에는 60 개국에서 온 400 명의 국제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살면서 아프리카, 중미, 중동, 인도, 동남 아시아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책을 통하여 지식을 전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전달하고, 궁극적인 삶의 소망에 대하여 전달하게 된다. 로고스 호프에 모인 400 명의 자원 봉사자들은 한 마을의 공동체처럼, 배 안에서 본인들이 섬길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대부분의 자원 봉사자들의 연령대는 20 대 중반에서 30 대 초로 젊은 층이지만, 2 년의 시간을 자원 봉사로 일하기를 다짐하고 함께 모여 살면서 60 개국의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의 벽을 넘어, 함께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2 년 기간의 자원 봉사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로고스 호프에서 배운 보다 넓은 세계관으로, 본국에서 참 소망을 전달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



로고스 호프의 한국인 자원 봉사자이며 인천 출신인 전유호(24)는 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한뒤에, 10 개월 전에 로고스 호프에 승선하였다. 배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전유호는 “ 배에 타기 전에는 라면만 끓일 줄 알았지만 (웃음), 이제는 입맛이 다 다른 400 명의 하루 세끼 음식을 챙겨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일하고 서로 배우면서, 섬김으로 함께 국제 친구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다르게 살고 있는 60 개국의 400 명의 국제 자원 봉사자들을 만나러 5000 여종의 다양한 책이 준비된 로고스 호프로 가족, 친구 들과 발걸음을 옮겨 보는 것은 어떨까?

로고스 호프는 현재 부산의 한국해양대학교에 정박하여 있으며 11 일부터 다대포 항에 정박하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군산, 인천을 방문하게 된다.

부산	6 월 5 일(목) ~ 7 월 7 일(월)	방문시간 일 1pm- 10pm / 월-화 3pm – 10pm / 수-토 10am – 10pm
군산	7 월 11 일 (금) ~ 7 월 20 일 (일)	
인천	7 월 30 일 (수) – 8 월 18 일 (월)	

END

서지영 (로고스 호프 인천준비팀-홍보 담당)

[Jiyoung.seo @gbships.org](mailto:Jiyoung.seo@gbships.org) / Mobile: 010-2907-1983